

“대한민국은 지금,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로 연결되는 중”

- 재외동포청, 홍보영상 ‘재외동포가 있다, 대한민국을 잇다’ 공개
- 재외동포의 중요성 ‘힙하고 색다르게’ 표현...“MZ세대도 공감”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국민들에게 전 세계 재외동포의 모국기여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‘재외동포가 있다, 대한민국을 잇다’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7월 4일 공개했다.
- 이번 홍보영상은 세계 속 재외동포가 모국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이자,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.
 - 영상에서는 “재외동포가 독립·배움·경제·문화를 세계로 잇는다”며 “대한민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연결된다”는 메시지를 MZ세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다르게 연출했다.
- 이번 영상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N 방송을 통해 송출되며, 해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SNS(유튜브·인스타그램·페이스북·네이버블로그)를 통해서도 동시에 공개된다.
 - 특히 유튜브(youtube.com/@OKAKOREA)에서는 영상 시청 인증 및 댓글 달기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재외동포의 역할과 활동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상덕 청장은 “재외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, 모국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희생과 기여를 아끼지 않았으며 지금은 한류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”며 “이러한

모국기여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홍보 영상 스틸컷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미주유럽동포과	책임자	과장	박은정	032-585-3165
		담당자	주무관	전소윤	032-585-3170